

루르드 CICIAMS 정기총회 참관기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활기찬 출범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



최의순 (마리아) 교수
가톨릭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장
CICIAMS 아시아 지역회장

2004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필자는 CICIAMS 아시아 지역 회장으로 대표이사 사회와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역 사무총장인 용진선(올리아나) 수녀님과 함께 프랑스 루르드를 다녀왔다.

CICIAMS는 국제적 수준의 가톨릭 전문단체로서 크리스천 도덕 원칙(Christian moral principles)에 따라 전문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이념을 구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전문직의 발전과 건전한 사회활동을 증진하는데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52개국 63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1982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CICIAMS의 기원은 1928년 유럽지역 몇 나라의 가톨릭 간호사회 회장들이 Basel에서 첫모임을 갖고 국제적 전문 가톨릭 단체를 조직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1933년 루르드에서 공식적인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에서 비롯된다. 초기에 이 국제기구는 가톨릭 간호사만이 모인 단체로 시작하였으나 의료인 상호간 협력은 물론, 보다 강력한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료-사회 종사자들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같이 하고 1956년부터는 조직을 확대, CICIAMS라는 공식 명칭을 채택하였다.

CICIAMS는 Comite International Catholique Des Infirmieres Et Assistantes Medico-Sociales의 약어로써 International Catholic Committee of Nurses and

Medico-Social Assistants(국제 가톨릭 간호사, 의료-사회 협력자 협회)를 의미한다.

CICIAMS는 세계회장, 각 지역회장(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어권, 아프리카 영어권, 미주지역),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표이사회의를 매년 봄, 가을 2회 실시하고, 각 회원국에서 대표 4인과 옵서버들이 참석하는 정기총회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또한 4년마다 세계대회, 각 지역대회를 개최하여 회원국 간의 정보교류, 친선도모,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NGO로서 ICN, WHO를 비롯한 각종 건강관련 국제기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동반자적 역할은 물론 가톨릭 전문직 단체로서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총회와는 1933년 CICIAMS 루르드 창립총회 이후 70년 만에 루르드에서 다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총회였다고 생각된다.

루르드는 파리 드골 공항에서 국내선으로 약 1시간 30분(고속철로는 약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파리 서남쪽에 위치한 인구 1만 8천여 명의 아름답고 조용한 작은 마을로서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스페인과의 접경지역이다.

이곳은 1858년 성모님께서 당시 14세의 소녀 벨라델타 성녀에게 열여덟 번 발현하시어 3가지 메시지 즉,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늘 기도하라”, “성전을 지어 많은 사람들이 행렬기도를 하게 하라”, “물로 씻어 늘 자신을 정화하라”를

전하신 성지로, 전 세계에서 매년 600여만 명의 순례객들이 성모마리아와 예수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고 벨라뎃다 성녀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자신들의 하느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미약하고 이기적이었는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곳이다.

작은 마을에 숙박시설(호텔급)이 400여 개가 넘고 성모님을 모신 동굴바위가 순례객들의 손길에 의해 대리석처럼 윤기가 나는 것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았다.

또한 이곳에서는 매년 평균 10건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올해에는 38번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기적은 의사들로 구성된 기적심의위원회에서 도저히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현상이 나타났을 때 7가지 엄정한 기준에 의해 이를 심의하고 교황청의 공식적인 인준 절차를 밟은 후에야 기적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2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4일간 열린 이번 CICIAMS 총회의 주요 안건은 규정 개정, 기구조직 개편, 활성화 방안 검토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현대의학 및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초래되는 윤리문제와 가정공동체의 붕괴현상은 현 세계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CICIAMS로서도 대처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절감하고 Ethics committee 활동을 강화하고 Healthy family committee 를 두는데 뜻을 모은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아시아 지역 회원 국가들의 협회활동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톨릭의료협회 출범과 협회의 설립목적 및 기대되는 역할들을 소개함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

총회를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CICIAMS 회원 국가들이 젊은 세대의 회원 수 감소현상과 재정난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활기찬 출범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았다.

평화롭고 성령 가득어린 은총의 마을 루르드에서 당신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들이 의지를 모아 설립한 한국가톨릭의료협회를 당신 뜻에 맡겨드리오니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협회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귀국길에 올랐다. 🙏

▶10p에서 이어짐
victory (cf. 1 Co 15: 55).

Catholic Medical Education can therefore never limit itself to a simple “on the job training” of young medical personnel or professionals. It is also challenged to produce and **spread a humanistic culture in which the primacy of the spirit over matter** is affirmed, people over things, ethics over technology. Let me end with the opening words of the already cited Encyclical “Veritatis Splendor”, which I believe define the ultimate purpose of any Catholic education: “The splendour of truth shines forth in all the works of the Creator and, in a special way, in the human person, created in the image of and likeness of God. Truth enlightens human intelligence and shapes people’s freedom, leading them to know and love the Lord” (n° 1).

I wish you a fruitful meeting and may your stay here in the beautiful land of the “morning calm” also knit bonds of friendship and trust among all participants in order to foster and ever greater collaboration between all Catholic Medical Universities, Hospitals and healthcare centers in the world. May the Good Lord bless and protect you and your work. Amen. 🙏